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농림수산물발전
기금 16일까지 4차 접수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저리 융자 혜택을 제공하는 농림수산물발전 기금 4차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농가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 부담 연리 2%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지만 시는 1억원의 시비를 출연해 농업인의 부담을 연리 1%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다. 지원 사업에는 농산물 가공설비, 산지 수매 및 저장 경영안정 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 운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되며, 시설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거처기간 동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민 600명 대상
C형간염 항체 무료 검사

정읍시가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C형간염 항체 무료 검사를 시행한다. 무증상으로 발견이 어려운 C형간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 보건소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검사는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는 특히 C형간염 확진자 가족, 과거 수혈자·주사기 공동 사용 경험자, 만성 간질환자, 면역저하자, 50대 이상 시민 등의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C형간염은 감염자의 70% 이상이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조기 발견이 어렵다. 방치할 경우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 간암 등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가요촌 ‘달하’ 야외 경관 대변신

정읍시, 21억 투입 수국정원 조성·야간조명설치·진입부 재정비 등... 2026년 완공 목표

정읍시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백제가요 정읍시 관광지 내 ‘한국가요촌 달하’의 활성화를 위해 총 21억원 규모의 야외 경관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19년 조성된 한국가요촌 달하를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도비 지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비어있는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핵심 내용은 △사계절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국정원’ 조성 △밤에도 안전하고 운치 있는 관람을 위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 △방문객 편의와 인지성 향상을 위한 ‘진입부 재정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달하’를 단순한 가요 전시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쉬고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현재 ‘한국가요촌 달하 야외 경관개선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6

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가요촌 달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 가요 ‘정읍사(井邑詞)’를 테마로 조성된 공간이다.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정읍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기리고,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함께 조명하는 곳으로 의미가 깊다. 이번 경관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역사적 스토리에 더해 아름다운 자연과 빛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저공해 알칼리성 식품 ‘부안노을감자’

권익현 부안군수, 동진면 부안노을감자 수확현장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3일 본격적인 수확을 맞은 동진면 부안노을감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올해 부안노을감자는 동진면과 계화면을 중심으로 143ha 1521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총 3400여톤이 수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노을감자는 겨울철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해 부안군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이 되고 있다. 특히 부안노을감자는 알칼리성 사질양토(沙質壤土)인 갯벌 땅에서 서해 바람을 맞으며 자라 황색을 띠고 윤기가 흐른다. 저공해 알칼리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고 칼륨 성분이 많아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들에게 좋다. 권익현 군수는 “앞으로도 부안군 대표 소득작목인 부안노을감자의 브랜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축제의 즐거움은 안전에서”... 벚꽃축제 의료지원 강화

정읍시, 의료지원반 구성... 구급차·자동심장충격기·응급구급약품 등 현장 배치 장비 점검

정읍시가 벚꽃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지원반을 가동하고, 심폐소생술 등 신속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보건소는 4월부터 6월까지 3일간 열리는 벚꽃축제를 앞두고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지원반을 구성했다. 이번 축제에는 구급차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구급약품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장비 점검도 사전에 철저히 완료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소는 현장에 투입될 간호사들에게 전문 응급구조사를 초빙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응급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3월 열린 전국 동학마라톤 대회에서도 한 참가자가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근처에 있던 의료반의 신속한 CPR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나가던 시민들의 심폐소생술로 회생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전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확대에 나선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한방 난임 치료 등 다양한 지원 ‘눈길’

고창군보건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치료 과정은 4개월 동안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침구 △뜸 등 기본 치료와 추가로 2개월간 경과 관리·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치료 시작일부터 6개월 동안은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

정 등 난임 시술)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영구적 불임에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은 올해 4월부터 첫 시행중이다.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를 동결·보존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중 △체외수정시술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초기보관(1년)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생애 1회만 지원해주며, 지원 금액은 여자는 최대 200만원, 남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김두레 의원,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제안

고령화시대 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 강조

부안군의회 김두레 의원이 제 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안군의 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약 39%에 달하는 만큼 “집에서 병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접수, 수납, 약국 방문까지 포함하는 통합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또한 강원도와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부안군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병원 동행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도입을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벚꽃축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고창군이 제3회 벚꽃축제부터 김치영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민관합동점검반에서는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격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점검,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먼저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에 게시

합은 물론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광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이용 편의를 높인다. 축제 기간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바가지요금과 자칫세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과 관광객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